

통설교가 청년목회에 미치는 영향  
: 하늘빛교회 청년공동체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나두찬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Douchan Na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N IMPACT OF TONG SERMON ON YOUNG ADULT MINISTRY : A CASE STUDY ON HANEULBIT YOUNG ADULT CHURCH**

Douchan Na

Seoul, Korea

Aft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Church of God was established on this land, and the church has experienced many ups and downs since then. As the past history shows, the church has had somany persecutions that we sometimes have to discuss the crisis of existence.

In some eras, just a single confession of faith in Jesus was subject to persecution, and in other eras, they were burned alive. At that time, persecutions were things that could shake the root of the church's faith, but the church gradually took root of the gospel. Through such a process, the church has grown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the influence of the gospel has gradually expanded to all countries. How was that possible? This was because the church was stayed strong in the trend and flow of the world despite such persecutions, and put all their focus only on the word of God.

We live in a flood-like era where if we even look up on the Internet a little bit, there are Christian books, videos, and Christian spiritual programs. However, just like when there is no water available for humans to drink during a flood era, it's similar in the

trend and flow of this era in which we live in.

When you experience the small persecution you face in life, you see many churches and saints living without the power of faith, like a tree without its roots. What could have gone wrong? I think the church has lost its focus. As the images of living churches in history show, the church should focus on the living word of God. In that sense, sermons are like the heart of worship. Through the weekly sermon of worship, you can realize the power to overcome the world and the direction to move forw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impact of Tong preaching on youth ministry and to suggest alternatives on how the younger generation, who may be the most distant from the church in this era, can come back and fully recover and grow. And I applied this study to the youth department of the Sky Light Church, where I work. Over time, I investigated how this Tong preaching affects young people, and I tried to derive the results by electing young people to conduct surveys and interviews.

In conclusion, I realized that Tong preaching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young people to get closer to the word of God, letting them see the Bible from a broader perspective, and achieve growing their faith. Through this Tong preaching, I sincerely hope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younger generation everywhere to build the kingdom of God.

국문초록

통설교가 청년목회에 미치는 영향

: 하늘빛교회 청년공동체 사례연구

나두찬

하늘빛교회,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그 이후에 수많은 풍파들을 경험해 왔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때로는 존폐 위기를 논해야 할 만큼 수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다.

어떤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도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시대는 산 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박해와 핍박들은 교회가 가진 믿음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복음의 영향력들은 점점 열방으로 확장되어 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교회는 그런 박해와 핍박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초점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넘치는 기독교

서적과 영상들 그리고 기독교 영성 프로그램 등이 넘치는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  
가고 있다. 그러나 홍수의 시대 때 사방의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사람이 마실 수 있  
는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이 바로 그러하다.

삶에서 직면하는 작은 꺾박과 박해를 경험할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은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이 믿음의 힘을 잃은 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교회가 초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 교회는 다시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 면  
에서 설교는 예배의 심장과 같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설교를 통해 이 세상을  
이겨낼 힘과 나아갈 방향을 깨달아 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通)설교가 청년 목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 시대 가  
운데 교회와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고 온전하게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필자  
가 사역하고 있는 하늘빛교회 청년부에 적용해 보았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러  
한 통(通)설교가 청년들에게 있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고, 청년  
들을 선출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함으로 그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통(通)설교가 청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  
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함  
과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통(通)설교를 통해 하나  
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청년 세대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  
히 바라고 소망한다.

## 목차

감사의 글 .....	ix
표 목차 .....	x
그림 목차 .....	xi
I. 서론 .....	1
1)연구의 필요성 .....	1
2)연구 범위와 방법 .....	5
II.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이해 .....	7
1)청년 세대의 정의와 특징.....	7
2)청년 세대의 신앙의 어려움 .....	9
3)성경 안에서의 세대 이해 .....	15
4)하늘빛교회 청년공동체 상황 .....	20
III. 통(通)설교의 이해 .....	25
1)통(通)의 개념 .....	25
2)통(通)성경이란? .....	26
3)통(通)설교란? .....	30
4)통(通)설교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세 .....	31
5)통(通)설교가 청년 세대에게 미칠 수 있는 삶의 변화 .....	43
IV. 통(通)설교의 실천 .....	45
1)통(通)설교의 실행방법 .....	46
2)하늘빛교회 청년부 통(通)설교 원고 .....	54
3)통(通)설교에 대한 설문조사 .....	72

4)통(通)설교에 대한 심층인터뷰 .....	79
5)평가 .....	82
<b>V. 결론</b> .....	83
1)요약 및 평가 .....	83
 <b>참고문헌</b> .....	 86

## 감사의 글

가장 먼저 여기까지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 귀한 통찰력을 키워주시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김영래 교수님,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설교자는 오직 성경으로만 써름해야 함을 몸소 가르쳐 주신 조병호 박사님, 창의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주신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와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하늘빛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빛교회 성도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저에게 주셨던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까지도 해주신 강홍식 장로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목회에 있어 한결같이 귀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예수세상교회 박상빈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부족한 자를 늘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아버지 나상남 집사님과 어머니 김연문 집사님 그리고 항상 감사한 장인어른 이성기 권사님과 장모님 정인순 권사님, 마지막으로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 이한나 사모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온유와 나한결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다시금 모든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2024. 3

나 두 찬

## 표 목차

<표 1> 세대별 구분 및 특성 .....	8
<표 2> 연령별 사망원인 .....	11
<표3> 1년1독 통독성경, 1-3월 목차.....	34
<표4> 1년1독 성경통독, 4-6월 목차.....	36
<표5> 1년1독 성경통독, 7-9월 목차.....	38
<표6> 1년1독 성경통독, 10-12월 목차 .....	40
<표7> 하늘빛교회 청년 공동체 예배 순서 .....	45
<표8> 통(通)성경 통트랙.....	46
<표9> 하늘빛교회 설교본문 .....	51

## 그림 목차

<그림 1> 2023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 종합적인 신뢰도(2023년 기준).....3	3
<그림 2> 2023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 가장 신뢰하는 종교(2023년 기준).....3	3
<그림 3> 2019-2020 연령별 자살률 증감률 .....	12
<그림 4> 출애굽세대와 만나세대 .....	17
<그림 5>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	19
<그림 6> 서울시 행정구역 내 강서구 위치 .....	21
<그림 7>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 인원 .....	22
<그림 8> 서울시 지역별 평균연령(행정구역별) .....	23
<그림 9> 설문조사 1 -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	73
<그림 10> 설문조사 2 -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74
<그림 11> 설문조사 3 - 본인의 신앙성장에 있어서 목회자의 설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75
<그림 12> 설문조사 4 - 지난 6개월간 통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기존의 설교와 통설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쉽고 이해가 잘 되는 설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76
<그림 13> 설문조사 5 - 통설교가 당신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77
<그림 14> 설문조사 6 - 통설교를 통해 일어난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면이 그러합니까? .....	78

## 제 I 장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는 그 중심에 설교가 있다. 왜 성도들은 매 주일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은 잠시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서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일깨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설교이다. 성도들은 매 주일의 설교를 통해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귀와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설교는 그런 점에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며 성도들에게 있어 영의 양식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도들이 더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인 설교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상적인 처세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되기 시작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교회의 위상은 점점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 전국에 만 19세 이상의 일 천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 이런 결과가 있었다.

조사 결과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매우+약간)은 21.0%로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10.8% 더 낮아진 결과이다. 이미 바닥권을 형성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더 하락한 것이다. 6차 조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0년 1월로 아직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임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 사태를 겪은 3년 사이에 한국 교회 신뢰도는 더 나빠진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4.7%로 과반을 차지하는 무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평균의 절반인 10.6%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37.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이든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에도, 개신교 안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20년 조사에서 22.4%가 나온 것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하여 가톨릭이라는 응답이 2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신교(16.5%), 불교(15.7%) 순으로 나타났다.<sup>1</sup>

<sup>1</sup> 정채영,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 뉴스넷.

2023년 3월 13일, <https://www.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5> [2024.2.27. 최종접속]

<그림1> 2023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 종합적인 신뢰도 (2023년 기준)<sup>2</sup>

### 2023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질문: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는가



기운실 의뢰, 지앤컴리서치 조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3.1.11~15.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Chart: NEWSNJOY · Source: 기운실 · Get the data · Created with Datawrapper

<그림2> 2023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가장 신뢰하는 종교 (2023년 기준)<sup>3</sup>

### 2023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질문: 다음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디인가



기운실 의뢰, 지앤컴리서치 조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3.1.11~1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Chart: NEWSNJOY · Source: 기운실 · Get the data · Created with Datawrapper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빛과

<sup>2</sup> 정채영,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 뉴스넷

<sup>3</sup> Ibid.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갔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의 신뢰도가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각 시대마다 어둡고 혼탁했던 위기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인 교회는 그 위기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기 이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의 강단부터 살려야 한다.

먼저 강단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매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또 이 땅 너머의 보이지 않는 실제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때 성도들은 매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씀에 대한 고민 끝에 필자는 통(通)설교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무언가 익숙해져 있는 공동체에 새로운 틀을 적용하는 것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것에는 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다. 그러나 통(通)설교 라는 관점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성도들의 중심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특별히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에게 바른 길과 바른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通)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통(通)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통(通)설교의 근간이 되는 통(通)성경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 청년부 주일설교 말씀을 통(通)설교로 진행하면서 통(通)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필자가 통(通)성경 설교를 진행하게 되면서 청년들이 느끼고 변화된 점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필자가 사역하는 하늘빛교회 청년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교인 만큼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영적인 풍토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항상 동일하다. 통(通)설교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필자와 동일하게 설교와 청년부의 사역과 변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필자의 시도가 또 하나의 귀한 대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와 방법을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이해로 청년 세대의 정의와 특징과 그리고 청년 세대가 가진 신앙의 어려움과 현재 하늘빛교회 청년공동체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더 나아가 구약과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의 세대들의 모습들과 특징들을 정의하였다.

3장에서는 통(通)설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서술하였다. 통(通)의 개념과 통(通)설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장에서는 통(通)설교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통(通)설교의 실행 절차에 대해 그리고 통(通)설교에 대한 설문조사와 반응을 평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 정리하였다.

## 제 II 장

###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이해

#### 1) 청년 세대의 정의와 특징

청년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푸를 청(靑)과 해 년(年) ‘靑年’으로 되어 있다. 즉 청년이라는 단어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젊은 성인을 뜻한다.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청년의 나이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을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의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의 연령 범위는 39살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세대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Z세대등 우리나라는 수많은 세대들이 존재한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50년 대 중반 - 60대 중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끝난 뒤에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으켰던 세대를 말한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헌신한 주역과 같은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붐 세대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X세대(60년 후반 - 80년 이전)가 새롭게 형성되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변화와 격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X세대는 사회의 체제 가운데 순응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몸부림치며 많은 마찰과 대항을 시도했던 세대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속한 M세대가 세워지게 된다. M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1990년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이 M세대 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91년 발행된 윌리엄 스트라우스(William Stauss)가 쓴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이다. 'M(Millennials: 밀레니얼)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정의한다.<sup>4</sup> 또한 M세대는 인터넷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익숙하게 다룬다고 해서 테크(Tech)세대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후에 Z세대가 등장한다. Z세대는 1990년 대 중반부터 2000년 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며, 이들은 M세대 보다 더욱 디지털 환경에 숙련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표1> 세대별 구분 및 특성<sup>5</sup>

X세대(60년 후반-80년 이전)		M세대(80년 초반-90년대 중반)		Z세대(90년 후반-)	
○		○		○	
1970년		1980년		2000년	
	디지털, 인터넷 베이비붐, 성장	데이터, 모바일, 글로벌, 소통, 성향	유튜브, 온라인, 크리에이터, 공유		
상징 제품	TV	스마트폰, 태블릿	유튜브, 웨어러블		
관심사	워라벨	자유	개인의 행복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SNS)	영상통화		
미디어이용	디지털이주민	디지털유목민	디지털네이티브		

<sup>4</sup> 노진실, “[창간 76주년 기획] 획일화 거부하는 MZ세대(하)- M세대와 Z세대는 '가깝고도 먼 우리' ”, *영남일보*, 2021년 10월 20일, <http://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1018010002221> [2024.2.27. 최종접속]

<sup>5</sup> 서울 연구원 도시 정보센터, “MZ세대 특성에 적합한 리더십 향상 방안” (월간서울 동향 리포트 2019년 12월호), 1-5.

사회적으로 이러한 M세대와 Z세대가 합쳐진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른다. 이들 세대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인터넷 환경에 강하다는 것이다. 이전의 M세대가 인터넷을 보고 사용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넘어 창의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스스로 주도해가며 개발해가는 세대이다.

오늘날 매일같이 디지털 기술에 큰 혁신과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MZ세대 역시 날마다의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청년 세대의 신앙의 어려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이라는 단어는 많은 희망적인 뜻과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별히 현재 청년들의 사회적인 측면과 신앙의 측면은 더욱 그러하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청년의 때는 이제 홀로서기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부모의 손을 떠나야 하며 성인 대다수의 남성들의 경우는 군대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취업을 준비해야하고 면접을 보고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꾸려가며 안정감을 누려가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 세대는 그런 안정감 보다는 늘 불안함과 위기감과 치열한 경쟁을 직면하며 살아가야 한다. 임홍택이 쓴 『90년생이 온다』는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추락하는 에스컬레이터로 비유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던 에스컬레이터의 전기 공급은 끊겼고, 줄지에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에 남게 된 자들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종착지까지 올라가야 했다. 이제 그들이 올라서 있는 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계단이다. 오늘도 이러한 직업 세상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멍으로 빠지고, 옆으로 밀려나서 떨어진다.

두렵다. 하지만 방법은 없다. 위만 보고 더 힘차게 올라가는 방법 뿐이다.<sup>6</sup>

필자가 바라보고 만나는 청년 세대는 안타까움과 문제가 많은 세대이다. 불안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들의 연애, 출산, 꿈과 미래, 인간관계 등의 삶의 가치들을 포기하며 살아간다. 청년사역자인 신동렬은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오늘날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는 무언가가 되지 않은 것이 고통이다. 어떤 학교의 학생, 어떤 직장의 사원이 되지 못한 것이 고통이다. 둘째는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이 고통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가지지 못해서 고통이다. 셋째로 무언인가를 누리지 못해서 괴롭다. 더 화려한 옷과 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더 좋은 여행을 즐기지 못해 고통스럽다.<sup>7</sup>

그러한 결과일까? 2020년 기준으로 OECD국가 중 한국은 자살률 1위의 국가이다.<sup>8</sup> 젊은 층의 자살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률의 잠재적인 더 큰 문제점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서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취업의 벽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트렌트 2023이 제시하는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와 통계청이 제시하는 2020 연령별 사망원인 통계 중에서 10대 자살률은 41.1%, 20대 자살률은 54.5%, 30대 자살률은 39.4%, 40대 자살률은 20.8%, 50대 자살률은 9.9%, 60대의 자살률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통계표에서 중요한 점은 20대 자살률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와 30대 역시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sup>6</sup>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서울 : whale books, 2023), 22.

<sup>7</sup> 신동렬, 『청년에 답하다』 (서울 : 예수전도단, 2016), 22.

<sup>8</sup> 정채영, “대한민국 자살률 여전히 'OECD 1위'...설상가상 '청소년 자살 급증'”, *데일리안*, 2022년, 6월 15일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3007> [2024.2.27. 최종접속]

<표2> 연령별 사망원인<sup>9</sup>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자살 (41.1%)	자살 (54.4%)	자살 (39.4%)	암 (28.3%)	암 (36.6%)	암 (41.4%)
2위				자살 (20.8%)		
3위					자살 (9.9%)	
4위						자살 (4.6%)

- 통계청, 2020 사망원인통계, 2021. 09

<그림3> 2019-2020 연령별 자살률 증감률<sup>10</sup>

2019~2020년 연령대별 자살률 증감률

[단위: %]



[출처: 통계청, 2019~2020년 사망원인통계]

<sup>9</sup> 지용근 김영수 조성실 정재영 손의성 전병철 이기룡 백광훈 유미호 김신권,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3), 109.

<sup>10</sup> Ibid., 109.

작년 통계에서 20대 자살률은 10만 명 당 21.7명으로 12년 전보다 12.8% 늘었고, 10대 자살률은 1년 전보다 9.4% 늘어나 10만명 당 6.5명이었다. 특히 20대 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54.4%에 달했다.<sup>11</sup>

그렇다면 청년 세대의 신앙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 한국 땅에 이곳과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CCC등 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지성과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지기 시작하였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각 교회마다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했던 모습들이 있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때 그 열정에 가득 찬 청년들은 어느 순간 기성세대가 되었고, 각 집회 마다 선교에 헌신하였던 청년들은 이제 어른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 헌신과 부흥이 교회의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 세대의 기둥들인 청년들이 점점 더 빠르게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인구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60년간 3세대를 거치며 한 해 평균 10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던 것이 40만 명이 되었고 다시 20만 명대로 신생아 수가 줄었다.<sup>12</sup> 이러한 수치는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며,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서울의 강서구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청년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포기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사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예장 통합의 경우 2000년 유치부 학생 수가 12만 6428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1만 3467명으로 5년 만에 1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 어린이부의 경우에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9만 8274명에서 26만 9911명으로, 중고등부는 1996년 23만 672명에서 18만 496명으로 무려 5만 명이

<sup>11</sup> Ibid., 109.

<sup>12</sup> 조영태, "2036년 한국, 소득 60% 세금 때 75세 이상 700만 명 부양한다" *조선일보*. 2016년 6월 7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021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0214.html) [2024.3.1. 최종접속]

교회를 빠져나갔다. 또한 2001년 보고에 의하면 한국 최대의 교단 중의 하나인 모 교단(장로교 통합)의 주일학생 수가 1995-2000년까지 6년 동안 약 15만 명이나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최근 드러난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래부터 주일학교가 없었던 개척 교회들을 제외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포기하고 문을 닫은 교회가 한국 전체 교회의 약 13%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sup>13</sup> MZ세대의 복음화률이 3%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통계도 있다.<sup>14</sup>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가 더욱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다.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용근은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 직후에 진행된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전체 개신교인 중 79.8%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20.2%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나안 성도로 나타난다. 한편 개신교인 중 20.2%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 모두 개신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 중 현장 예배에 나가지 않는 42.6%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한 20.2%가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하는 그룹이다. 이 두 그룹을 합해 전체 개신교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54.2%에 해당한다.<sup>15</sup>

가나안 성도들에게 교회를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37.9%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라고 답했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12.3%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라고 답했다. 따라서 50.2%의 응답자들은 교회 출석 여부를 떠나 자신의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다. 그 밖에 26.2%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라고 답했고, 13.2%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라고 답했다. 약 39.4%가

<sup>13</sup> 고현중, “다음 세대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 희망 없다” 당당뉴스. 2016년 12월 8일,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68> [2024.2.27. 최종접속]

<sup>14</sup> 김변호, “MZ세대 복음화율 3%… 부모가 신앙교육 전면 나서야” 국민일보 2022년 4월 12일,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40013> [2024.2.27. 최종접속]

<sup>15</sup>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 규장, 2023), 54

자신의 기독교 환경이나 오래된 신앙적 가치를 자기 종교적 정체성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청년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와도 같다. 그러나 이런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M세대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주목했던 시대를 살아왔던 세대이며, Z세대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가 보이지 않는 인터넷 가상 시대에서 창의적인 영역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세대이다.

이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에, 청년 세대는 교회를 가까이하기보다는 마음을 닫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근래의 코로나 라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면서 청년 세대가 더욱 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와 진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멀어지는 청년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절대 다른 세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3) 성경 안에서의 세대 이해

그렇다면 성경은 각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조병호는 성경에 나타난 세대들을 크게 ‘출애굽세대, 만나세대, 미스바세대, 재건세대, 복음 1세대, 복음 2세대’ 로 나누며 정의하고 있다. 세대의 특징을 보면

---

<sup>16</sup> Ibid., 56.

구약에서는 ‘율법 부흥’ 이 포인트였고, 신약에서는 복음 부흥이 포인트였다.<sup>17</sup>

먼저 출애굽세대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조병호는 이 출애굽 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출애굽세대’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들은 애굽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자들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음도 범했지만, 그 후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맺고 약 6개월간 성막을 제작하는데 헌신한 자들이기도 하다<sup>18</sup>.

그러나 출애굽 세대는 결국 민수기 13장의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되었다.

이 출애굽 세대의 다음 세대는 만나세대이다. 만나세대는 출애굽의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양육된 세대를 말한다. 조병호는 이 만나세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만나세대는 출애굽세대의 자녀이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배운 ‘로스쿨 출신’ (?)들이었다. 그들은 교육의 혜택을 입음으로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달랐으며,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에게 충성했으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용기 있게 승리했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에게 마지막 <신명기>를 교육받음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까지도 갖춘 자들이었다. 만나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마쳤고 제비뽑기를 통해 약속의 땅을 분배 받는 큰 은혜를 누렸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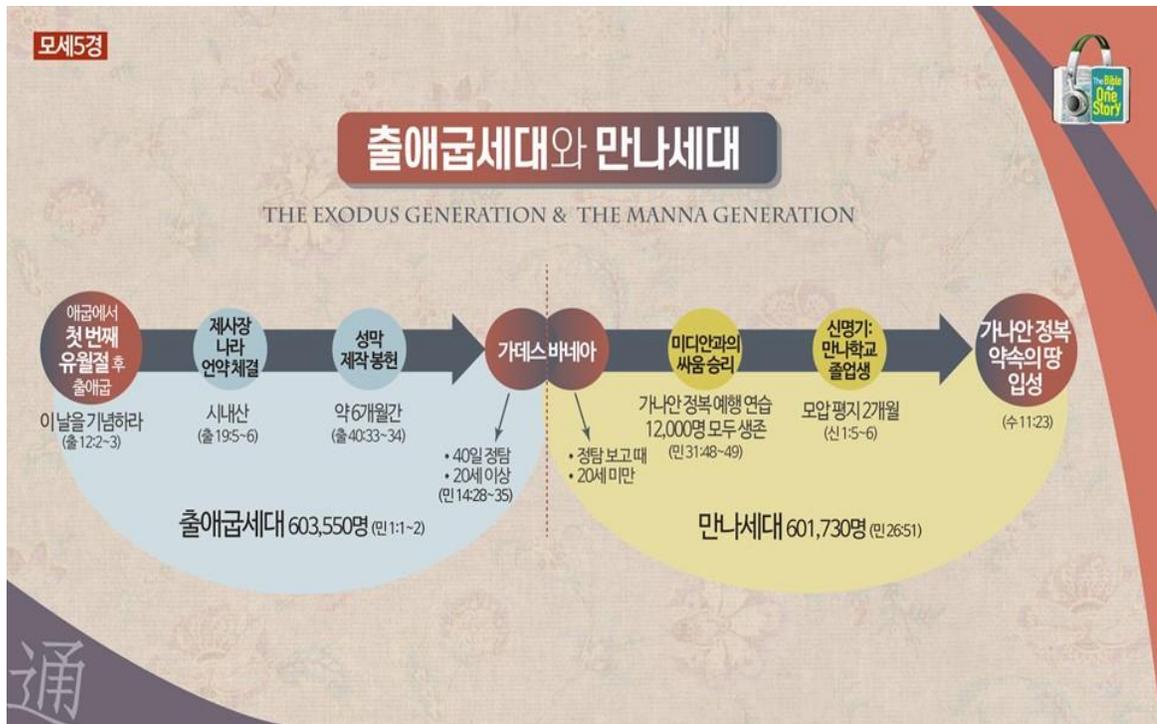
<sup>17</sup> 조병호, “사회와 다른 성경 속 ‘세대’ 30. 만나세대와 복음2세대” *기독교공보*, 2023년 8월 16일, <https://www.pckworld.com/article.php?aid=9893914541> [2024.2.27. 최종접속]

<sup>18</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 (서울 : 통독원, 2023), 107.

<sup>19</sup> Ibid., 107.

만나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한 세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던 세대이다. 그러나 이 만나세대도 어두운 면이 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신앙을 그 다음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락으로 가장 어두워진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출애굽기와 만나세대의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4> 출애굽세대와 만나세대<sup>20</sup>



만나세대가 지나간 이후에는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 때에 미스바 세대가 세워지게 된다. 조병호는 이 미스바세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 350년의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운 시대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모세 시대 이후 단절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시대였다. 그 결과 탄생한 세대가 바로 미스바세대이다. ‘미스바세대’는 20년 동안 사무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고

<sup>20</sup> Ibid., 106.

형성된 세대이다.<sup>21</sup>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제사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그들의 마음을 향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도록 권면한다. 이스라엘은 이때 철저한 회개를 경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에게 큰 우위를 발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

미스바 세대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경영법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경험했던 세대이다. 미스바세대 이후에는 재건세대가 등장한다. 재건세대는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 500년의 시기를 지난 이후에 세워지는 세대를 말한다. 조병호는 이 재건세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사사 시대와 왕정 500년 시기를 지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친 귀환공동체가 다시 제사장 나라를 리셋했고, 이들은 '재건세대'가 됐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돌려준 5400점의 성전 기명을 토대로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절기를 회복시켰다(느 8:17~18).<sup>22</sup>

재건 세대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을 지닌 세대였지만, 그러나 다시금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소망과 꿈을 이루어지게 된 회복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재건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이제 신약의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가 세워지게 된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스테반과 빌립, 사도바울 등, 이 복음 1세대를 통해 선교의 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복음 2세대는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 복음 1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던 젊은

<sup>21</sup> Ibid., 164-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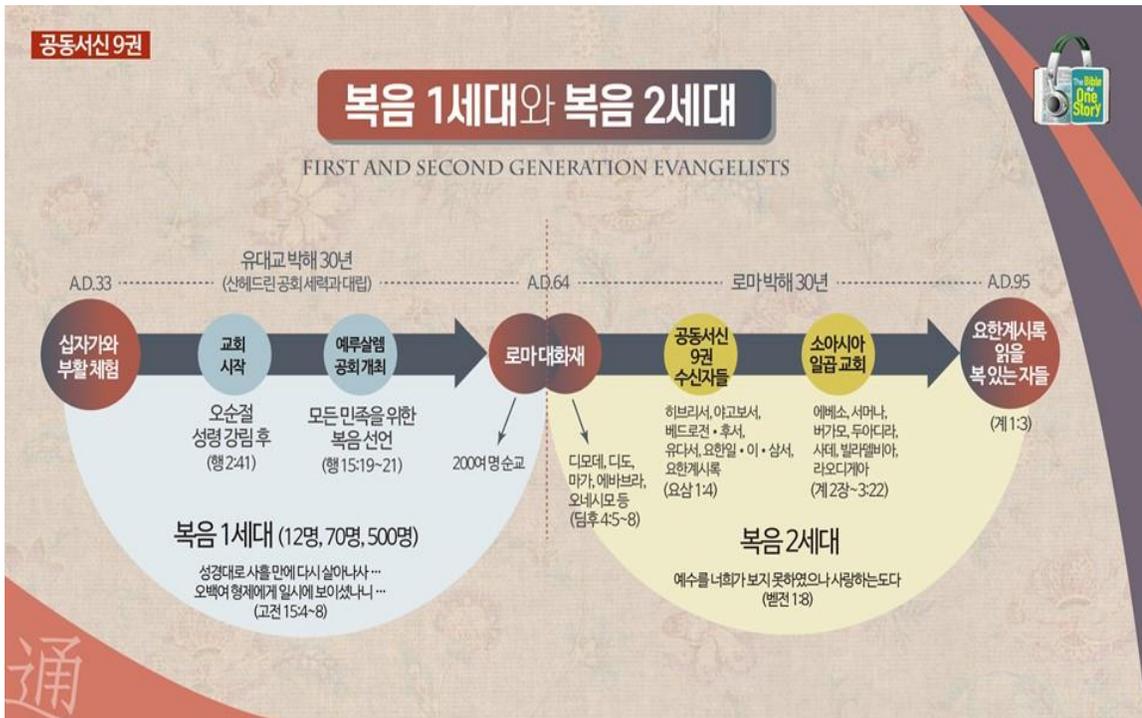
<sup>22</sup> 조병호, “사회와 다른 성경 속 ‘세대’ 30. 만나세대와 복음2세대” 기독교보, 2023년 8월 16일, <https://www.pckworld.com/article.php?aid=9893914541> [2024.2.27. 최종접속]

세대를 뜻한다. 조병호는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사도행전 30년’ 동안 복음 1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A.D 64년 로마에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이 끝내 잡히지 않자 로마의 네로 황제는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고, 그때부터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이용해 복음 1세대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잡아 처형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초기교회는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 1세대들의 뒤를 이어 복음 2세대들이 등장해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후 250년 동안 이어진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서 싸우며 끝까지 교회를 지킨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계승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계승의 예라 할 수 있다.<sup>23</sup>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의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래와 같다.

<그림 5>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sup>24</sup>



<sup>23</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 (서울 : 통독원, 2023), 578.

<sup>24</sup> Ibid., 577.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의 분기점은 A.D 64년 경의 로마 대화재 사건을 통해 나뉘지게 된다. 그러나 복음 2세대는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도 큰 부흥을 이루어 가게 된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각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복음의 물결이 계속 흘러갈 수 있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危機)는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귀한 기회(機會)가 되게 될 것이다.

### 3) 하늘빛교회 청년공동체 상황

현재 필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하늘빛교회의 위치는 서울의 강서구에 위치해 있다. 강서구는 서울에서도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적이 큰 도시이다.

강서구는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에 인천시와 부천시 그리고 김포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서 강서구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6> 서울시 행정구역 내 강서구 위치<sup>25</sup>



강서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는 교육이다. 강서구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많은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의료기관이 많은 도시라는 것이다. 강서구는 메디컬 특구로 지정이 되어 많은 병원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현재 강서구 내에서 살고 있는 총 인구의 숫자는 562,550명으로 되어 있다.<sup>26</sup> 강서구의 총 인구 숫자를 서울시 안에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강서구는 송파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p>25</sup> 강서구청. “서울시 행정구역 내 강서구 위치” 강서구청홈페이지, <https://www.gangseo.seoul.kr/gs050102> [2024년 3월 1일 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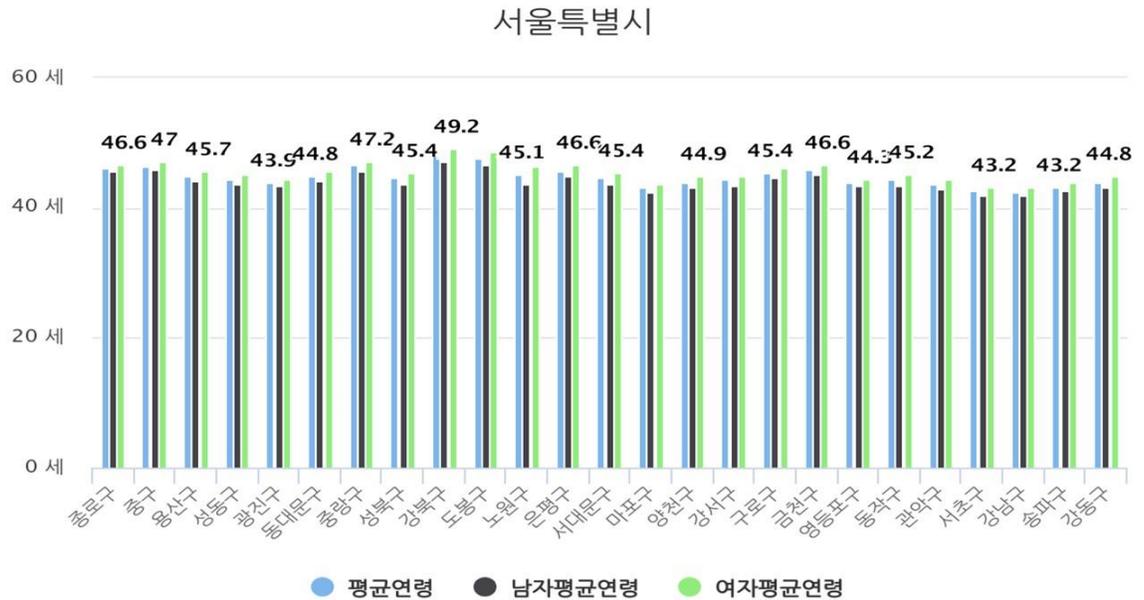
<sup>26</sup>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 [2024.3.1. 최종 접속]

<그림7>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 인원<sup>27</sup>

이러한 전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때, 강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가 비교적 많은 곳에 속한다. 구체적인 강서구의 평균 나이를 보면 강서구의 남성 평균 나이 43.5세, 여성 평균 나이 45세이다. 이와 같이 강서구는 남녀 평균 나이가 44.3세로 다른 타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도 하다. 아래는 서울시 지역별 평균 연령(행정구역별)을 나타내고 있는 도표이다.

<sup>27</sup> 행정안전부,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 인원”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  
[2024.3.1. 최종 접속]

<그림8> 서울시 지역별 평균연령(행정구역별) <sup>28</sup>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하늘빛교회는 1978년 4월 5일에 개척한 교회이며 처음에는 화곡중앙교회 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영생교회 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현재 강서구 우장산동의 하늘빛교회로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하늘빛교회는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 하늘빛교회에 2019년 10월에 부임을 했으며 사역을 한지 4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 부임 초기에는 청년공동체에 대략 70명에서 많게는 80명의 청년들이 있었다. 그러나 부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있었다.

처음 부임했을 당시의 청년공동체의 분위기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처럼,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보다는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 매년마다 새롭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리더들을 세웠고, 청년공동체를 이끌어 갔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았다.

<sup>28</sup> 행정안전부 “서울시 지역별 평균연령(행정구역별)”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 [2024.3.1. 최종 접속]

청년들의 관계도 이미 오랜 시간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지체를 받아 드리며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관계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강한 향들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주일예배를 드리는 청년공동체의 숫자는 50명에서 60명을 좌우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청년공동체에서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의 청년들은 35%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의 청년들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 청년이 35% 정도를 여성 청년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들 중에 교인들의 자녀인 경우는 70%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 경우는 부모가 타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비교인 층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매 주일의 예배가 드러졌지만 영적인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공동체 안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필자에게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힘든 것이 설교였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통(通)설교로 진행하기로 결단하였다.

## 제 III 장

### 통(通)설교의 이해

#### 1) 통(通)의 개념

통(通)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通)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통(通)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먼저는 ‘막힘이 없이 들고 가다’ 라는 뜻이 있다. ‘말이나 문장 따위의 논리가 이상하지 아니하고 의미의 흐름이 적절하게 이어져 나간다’ 는 뜻이다. 더 나아가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 는 뜻도 있다.

조병호 목사는 통(通)에 대해 정의하기를 “통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각각 이해하고 이어서 그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sup>29</sup> 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통(通)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통달(通達), 관통(貫通)하도록 보는 것이다. 막힘 없이 훤히 알도록 보는 것, 본질을 파악해서 정통하게 아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것, 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해서 한번에 쥐어 잡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통(通)으로 본다는 것이 대상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통(通)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을 꿰뚫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0</sup>

<sup>29</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 통독원, 2008), 67.

<sup>30</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 통독원, 2009), 63.

즉 통(通)이라는 것은 어떤 한 단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바라보고 파악하는 시각을 말한다. 이것을 큰 숲으로 비유를 한다면 통(通)이란, 숲 안에서 홀로 서 있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의 처음부터 끝까지 숲의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사고방식이자 삶의 방법이자 매개체가 된다.

## 2) 통(通)성경이란?

통(通)설교를 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통(通)성경이다.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또한 개인·가정·나라를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조병호는 성경 안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通)으로 보는 시각을 이렇게 정의한다.

성경에는 대략 2,000여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있다. 먼저 성경 속의 시간에는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과 ‘끝’이 모두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절기와 명절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이 있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또 1,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2,000여 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성경 속 공간은 일정 지명들을 포함해 ‘보여줄’에서부터 ‘땅끝까지’ 약 1,500여곳에 이른다.<sup>31</sup>

이처럼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수많은 파편 조각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통(通)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수많은 파편들이 하나로

<sup>31</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서울 : 통독원, 2020), 10.

관통되며 통(通)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성경 안의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시각에 대해서 조병호는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모세가 태어난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 가면서 망을 봄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없고 마음이 하나였던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 가정 ·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 · 가정 · 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통(通)성경이다.<sup>32</sup>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로 국한되어 보았던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세워가고 회복시키고자 하였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하나로 연결 지어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 역시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이야기가 하나의 통(通)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야기이다.

---

<sup>32</sup> Ibid., 11.

이처럼 개인·가정·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과 역사들을 목도해 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각에 대해 조병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 나라 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이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sup>33</sup>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많은 제국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만약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을 통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러한 통(通)의 시각으로 접근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눈물을 볼 수 있게 된다.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다. 이 홍수 심판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호흡이

---

<sup>33</sup> Ibid., 12.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멸절 는 심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심판을 다시 보아야 한다. 조병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홍수를 도구로 한 처벌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눈물이었다는 사실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살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지으시고 복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 기쁨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창세기 6장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한탄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기대와 사랑이 컸던 만큼 안타까움과 한탄의 강도도 강하셨던 것이다. 노아 외에 만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들을 만들었다면, 아니 노아의 방주 속에 함께 들어가더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구원해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sup>34</sup>

이처럼 성경을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이 여러 조각 모음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전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시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듣기를 원하는 개인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와 이 세계를 품고 계시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고 들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sup>34</sup> 조병호, 『21세기는 통이다』 (서울 : 땅에쓰신글씨, 2007), 165.

### 3) 통(通)설교란?

그렇다면 통(通)설교란 무엇인가? 먼저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담 헤밀턴은 설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설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를 통한 복음 선포는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sup>35</sup> 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란 전인을 다루는 것이고, 회중이 감복하게 되어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고 계시며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무엇인가가 그 설교를 듣는 자 안에서 일어나고 무엇인가가 체험되며 설교가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6</sup> 라고 말하였다.

설교자 존 스토틀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빈 공간 속에 있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현실 세계와는 관계없는 신비적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역사 속에서 사셨고 죽으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의 온갖 다양한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시는 현시대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곧 현실과 접촉하는 것이요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다.”<sup>37</sup> 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통(通)설교를 정의해 보자면 통(通)설교는 통(通)성경을 밑바탕으로 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通)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속의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 기대와 실망, 하나님의 설득과 인내하심을 깨닫게 한다. 더 나아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sup>35</sup> 아담 헤밀턴, 『말씀을 해방시켜라』, 유성준 역(서울: KMC, 2009), 7.

<sup>36</sup>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서울: 복 있는 사람, 2010), 87.

<sup>37</sup> 존 스토틀, 『설교론』, 원광연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163.

헤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통(通)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우리는 단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리고 그 분의 섭리와 뜻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다.

#### 4) 통(通)설교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세

설교자가 통(通)설교를 하고자 한다면 설교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갖추어야 할 분명한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성경을 끊임없이 통독해 가는 자세이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두껍고 어렵고 따분한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러브레터와 같다. 조병호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필자가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생각이 있다. 첫째는 성경은 얇은 책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두껍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는 것을 엄두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성경만큼 얇은 책이 없다.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해 놓은 책이다. ...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성경은 눈으로만 읽어서 끝나는 책이 아니다. 소리를 내어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기록된 말씀의 억양과 어조가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어야 하는 책이다. 더 나아가 성경은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책이고 온몸으로 행동해야 하는 책이다. ... 셋째, 성경은 일년에 열 번 읽어야 하는 책이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책을 읽는다. 어떤 책은 제목이나 목차만 보기도 하고, 어떤 책은 대충대충 훑어보거나, 어떤 부분만 골라서 보기도 한다. ... 하루에 2시간씩만 꾸준히 읽으면 일년에

열 번 읽을 수 있다.<sup>38</sup>

사람을 알아갈 때도 그 사람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서는 절대 그 사람을 다 알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바르게 알아가고자 한다면 성경을 통독해 가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조병호 목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볼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 압축한 책이다. 그런데 요약 압축한 책을 또다시 부분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자세로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 다른 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매일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마치 충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반드시 그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펄 벅(Pearl S. Buck)의 <<대지>>(The Good Earth)를 하루에 1장씩 몇 년에 걸쳐 읽는다면, 그 책에서 무슨 감동을 받겠는가? 밤새워 며칠에 걸쳐 단숨에 읽어야 그 책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책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번 더 읽으면 처음에 간과했던 것이 보이면서 더 재미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소설도 그럴진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제대로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sup>39</sup>

이 땅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는 절대로 지루하고 따분하게 읽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편지 안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편지를 여는 즉시 쉬지 않고 끝부분까지 다 읽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성경이 그러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sup>38</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 통독원, 2008), 7-8.

<sup>39</sup> 조병호,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 보인다』 (서울 : 통독원, 2012), 198.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창세기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출애굽기의 기록처럼 애굽이라는 제국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처럼,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레위기의 기록처럼 문둥병에 걸려 진영에서 쫓겨나 삶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이제 율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율법으로 인해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절망의 끝에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며 결국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두번째로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가야 한다. 일반적인 구약성경의 순서는 5권의 율법서와 12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39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4권의 복음서, 1권의 역사서, 13권의 바울서신과 8권의 공동서신, 그리고 1권의 예언서 순서로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순서 그대로 읽기가 쉽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역사의 흐름이 엇갈리고 역사를 주관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성경의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순서를 고려하며 그 순서를

따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조병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배열하고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20개의 마당으로,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진리의 이야기들을 40개의 줄기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1년 동안의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3> 1년1독 통독성경, 1-3월 목차<sup>40</sup>

1월			2월			3월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1	창 1-2장	1	32	출 39-40장	1	60	신 5-6장
2	2	창 3-5장	2	33	레 1-5장	2	61	신 7-9장
3	3	창 6-9장	3	34	레 6-7장	3	62	신 10-11장
4	4	창 10-11장	4	35	레 8-10장	4	53	신 12-14장
5	5	창 12-14장	5	36	레 11-13장	5	64	신 15-17장
6	6	창 15-17장	6	37	레 14-15장	6	65	신 18-21장
7	7	창 18-21장	7	38	레 16-17장	7	66	신 22-26장
8	8	창 22-24장	8	39	레 18-20장	8	67	신 27-28장
9	9	창 25-27장	9	40	레 21-22장	9	68	신 29-30장
10	10	창 28-30장	10	41	레 23-25장	10	69	신 31-32장
11	11	창 31-33장	11	42	레 26-27장	11	70	신 33-34장, 시 90편
12	12	창 34-36장	12	43	민 1-2장	12	71	수 1-2장

<sup>40</sup>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1권』 (서울: 통독원, 2014), 6-8.

13	13	창 37-38장	13	44	민 3-4장	13	72	수 3-5장
14	14	창 39-41장	14	45	민 5-6장	14	73	수 6-8장
15	15	창 42-44장	15	46	민 7-8장	15	74	수 9-12장
16	16	창 45-47장	16	47	민 9-10:10	16	75	수 13-17장
17	17	창 48-50장	17	48	민 10:11- 12장	17	76	수 18-19장
18	18	출 1-2장	18	49	민 13-14장	18	77	수 20-22장
19	19	출 3-4장	19	50	민 15-17장	19	78	수 23-24장
20	20	출 5-7장	20	51	민 18-19장	20	79	삿 1장-2:10
21	21	출 8-10장	21	52	민 20-21장	21	80	삿 2:11-5장
22	22	출 11-13장	22	53	민 22-25장	22	81	삿 6-7장
23	23	출 14-15장	23	54	민 26-27장	23	82	삿 8-9장
24	24	출 16-18장	24	55	민 28-30장	24	83	삿 10-12장
25	25	출 19-20장	25	56	민 31-32장	25	84	삿 13-16장
26	26	출 21-23장	26	57	민 33-36장	26	85	삿 17-18장
27	27	출 24-27장	27	58	신 1-2장	27	86	삿 19-21장
28	28	출 28-29장	28	59	신 3-4장	28	87	룻 1-4장
29	29	출 30-31장				29	88	삼상 1-3장
30	30	출 32-34장				30	89	삼상 4-7장
31	31	출 35-38장				31	90	삼상 8-10장

<표4> 1년1독 성경통독, 4-6월 목차<sup>41</sup>

4월			5월			6월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91	삼상 11-12장	1	121	잠언 21-24장	1	152	시 91-102편
2	92	삼상 13-14장	2	122	잠 25-29장	2	153	시 103-106편
3	93	삼상 15-16장	3	123	잠 30-31장	3	154	시 107-118편
4	94	삼상 17-18장	4	124	아 1-4장	4	155	시 119편
5	95	삼상 19장, 시 59편	5	125	아 5-8장	5	156	시 120-134편
6	96	삼상 20-21장, 시 34편	6	126	왕상 11장	6	157	시 135-142편
7	97	삼상 22장, 시 52편	7	127	전 1-3장	7	158	시 143-150편
8	98	삼상 23-24장, 시 57편	8	128	전 4-7장	8	159	왕상 12-14장
9	99	삼상 25-26장, 시 54편	9	129	전 8-12장	9	160	왕상 15-16:20
10	100	삼상 27-31장	10	130	읍 1-3장	10	161	왕상 16:21- 17장
11	101	삼하 1-2장	11	131	읍 4-7장	11	162	왕상 18-19장
12	102	삼하 3장-5:5	12	132	읍 8-10장	12	163	왕상 20-22장

<sup>41</sup>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2권』 (서울: 통독원, 2014), 4-6.

13	103	삼하 5:6-6장	13	133	읍 11-14장	13	164	왕하 1-2장
14	104	삼하 7-10장	14	134	읍 15-17장	14	165	왕하 3-5장
15	105	삼하 11-12장 시 51편	15	135	읍 18-19장	15	166	왕하 6-8장
16	106	삼하 13-14장	16	136	읍 20-21장	16	167	왕하 9-10장
17	107	삼하 15장, 시편 3편	17	137	읍 22-24장	17	168	왕하 11-14장
18	108	삼하 16-17장	18	138	읍 25-31장	18	169	암 1-5장
19	109	삼하 18-20장	19	139	읍기 32-37장	19	170	암 6-9장
20	110	삼하 21-22장	20	140	읍 38-42장	20	171	호 1-4장
21	111	삼하 23-24장	21	141	시 1-2, 4-9편	21	172	호 5-9장
22	112	왕상 1-2장	22	142	시 10-18편	22	173	호 10-14장
23	113	왕상 3-4장	23	143	시 19-27편	23	174	은 1-4장
24	114	왕상 5-7장	24	144	시 28-33편	24	175	왕하 15-16장
25	115	왕상 8장	25	145	시 35-41편	25	176	왕하 17-18:12
26	116	왕상 9-10장	26	146	시 42-50편 ,53편	26	177	사 1-3장
27	117	잠 1-5장	27	147	시 55-56편, 58, 60-66편	27	178	사 4-7장
28	118	잠 6-9장	28	148	시 62-72편	28	179	사 8-12장
29	119	잠 10-15장	29	149	시 73-78편	29	180	사 13-17장

30	120	잠 16-20장	30	150	시 79-85편	30	181	사 18-20장
			31	151	시 86-89편			

<표5> 1년1독 성경통독, 7-9월 목차<sup>42</sup>

7월			8월			9월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182	사 21-24장	1	213	렘 34-36장	1	244	겔 4-7장
2	183	사 25-29장	2	214	렘 37-38장	2	245	겔 8-11장
3	184	사 30-35장	3	215	왕하 25장 렘 39-41장	3	246	겔 12-14장
4	185	왕하 18:13- 37, 사 36장	4	216	렘 42-25장	4	247	겔 15-17장
5	186	왕하 19장, 사 37장	5	217	렘 46-48장	5	248	겔 18-20장
6	187	왕하 20장 사 38-39장	6	218	렘 49-50장	6	249	겔 21-22장
7	188	사 40-42장	7	219	렘 51-52장	7	250	겔 23-24장
8	189	사 43-45장	8	220	애 1-2장	8	251	겔 25-28장
9	190	사 46-50장	9	221	애 3-5장	9	252	겔 29-32장
10	191	사 51-55장	10	222	읍 1장	10	253	겔 33-35장

<sup>42</sup>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3권』 (서울: 통독원, 2014), 4-6.

11	192	사 56-59장	11	223	대상 1-3장	11	254	겔 36-37장
12	193	사 60-63장	12	224	대상 4-5장	12	255	겔 38-39장
13	194	사 64-66장	13	225	대상 6-9장	13	256	겔 40-41장
14	195	미 1-3장	14	226	대상 10-12장	14	257	겔 42-43장
15	196	미 4-7장	15	227	대상 13-16장	15	258	겔 44-46장
16	197	왕하 21-23장	16	228	대상 17-20장	16	259	겔 47-48장
17	198	습 1-3장	17	229	대상 21-22장	17	260	단 1-2장
18	199	합 1-3장	18	230	대상 23-26장	18	261	단 3-4장
19	200	나 1-3장	19	231	대상 27-29장	19	262	단 5-6장
20	201	을 1-3장	20	232	대하 1-4장	20	263	단 7-9장
21	202	왕하 24장 렘 1-3장	21	233	대하 5-7장	21	264	단 10-12장
22	203	렘 4-6장	22	234	대하 8-9장	22	265	스 1-2장
23	204	렘 7-9장	23	235	대하 10-13장	23	266	스 3-4장
24	205	렘 10-13장	24	236	대하 14-17장	24	267	학 1-2장
25	206	렘 14-16장	25	237	대하 18-22장	25	268	속 1-6장
26	207	렘 17-20장	26	238	대하 23-25장	26	269	속 7-10장
27	208	렘 21-23	27	239	대하 26-28장	27	270	속 11-14장
28	209	렘 24-25장	28	240	대하 29-31장	28	271	스 5-6장
29	210	렘 26-31장	29	241	대하 32-33장	29	272	에 1-5장
30	211	렘 32-33장	30	242	대하 34-36장	30	273	에 6-10장
31	212		31	243				

<표6> 1년1독 성경통독, 10-12월 목차<sup>43</sup>

10월			11월			12월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날짜	순서	범위
1	274	스 7-8장	1	305	눅 21-22장	1	335	행 20:1-6, 롬 1-3장
2	275	스 9-10장	2	306	눅 23-24장	2	336	롬 4-7장
3	276	느 1-3장	3	307	요 1-3장	3	337	롬 8-11장
4	277	느 4-7장	4	308	요 4-6장	4	338	롬 12-14장
5	278	느 8-10장	5	309	요 7-8장	5	339	롬 15-16장
6	279	느 11-13장	6	310	요 9-11장	6	340	행 20:7-23장
7	280	말 1-4장	7	311	요 12-13장	7	341	행 24-26장
8	281	마 1-4장	8	312	요 14-15장	8	342	행 27-28장
9	282	마 5-7장	9	313	요 16-17장	9	343	엡 1-3장
10	283	마 8-10장	10	314	요 18-19장	10	344	엡 4-6장
11	284	마 11-13장	11	315	요 20-21장	11	345	빌 1-4장
12	285	마 14-16장	12	316	행 1-2장	12	346	골 1-4장
13	286	마 17-20장	13	317	행 3-5장	13	347	몬 1장
14	287	마 21-23장	14	318	행 6-9장	14	348	딤후 1-6장
15	288	마 24-25장	15	319	행 10-12장	15	349	딤후 1-3장
16	289	마 26-28장	16	320	행 13-15:35	16	350	딤후 1-4장

<sup>43</sup>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4권』 (서울: 통독원, 2014), 4-6.

17	290	막 1-3장	17	321	행 15:36- 18:22	17	351	히 1-4장
18	291	막 4-6장	18	322	살전 1-5장	18	352	히 5-10장
19	292	막 7-8장	19	323	살후 1-3장	19	353	히 11-13장
20	293	막 9-10장	20	324	갈 1-3장	20	354	약 1-5장
21	294	막 11-13장	21	325	갈 4-6장	21	355	벧전 1-5장
22	295	막 14-16장	22	326	행 18:23- 19장	22	356	벧후 1-3장
23	296	눅 1-2장	23	327	고전 1-4장	23	357	유 1장
24	297	눅 3-4장	24	328	고전 5-8장	24	358	요일 1-5장 <sup>ㄷ</sup>
25	298	눅 5-6장	25	329	고전 9-11장	25	359	요이 1장 요삼 1장
26	299	눅 7-8장	26	330	고전 12-14장	26	360	계 1-3장
27	300	눅 9-10장	27	331	고전 15-16장	27	361	계 4-7장
28	301	눅 11-13장	28	332	고후 1-4장	28	362	계 8-11장
29	302	눅 14-16장	29	333	고후 5-9장	29	363	계 12-15장
30	303	눅 17-18장	30	334	고후 10-13장	30	364	계 16-18장
31	304	눅 19-20장				31	365	계 19-22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다. 이 비유 속에는 씨와 씨가 심겨지는 밭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온다. 여기서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속에 심겨진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다. 문제는 씨가 심겨지게 되는 밭이다. 즉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에 대해 결실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일날 통(通)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면, 이 통(通)설교를 듣고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 역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교자와 성도들 모두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역사의 시간 순으로 통독해 갈 때 성경 66권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갈 수 있다.

세번째, 설교자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경의 시대와 우리와의 시대의 간격을 끊임없이 좁혀 가기를 힘써야 한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사이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다. 성경은 역사 위에서 쓰여 졌다. 역사는 오직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 땅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 속의 시간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장벽, 지리적인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들을 넘어가야 한다.

먼저 시간적인 장벽을 생각해 보면 신약성경은 오늘날 우리와의 최소 2,000년의 거리가 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으며 지중해와 홍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이다.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로 이루어 있다. 구약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으며, 일부는 아람어<sup>44</sup>로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성경을 통(通)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성경을 끊임없이 통독해 가는 자세와 더 나아가 성경의 시대와 우리와의 시대의 간격을 좁혀 가기 시작할 때, 비로써

---

<sup>44</sup> 스 4:8-6:18; 7:12-26; 렘 10:11; 단 2:4-7:28

통(通)설교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게 된다.

### 5) 통(通)설교가 청년 세대에게 미칠 수 있는 삶의 변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까지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목하게 되면 그 안에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통(通)설교를 통해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모습들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

첫번째, 개인의 삶의 변화이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자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말한다. 말씀의 부흥이 있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영적으로 양적으로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된다.

두번째, 교회 공동체의 변화이다. 초대교회는 단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렇기에 서로의 물건을 나누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결국 이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다.

세번째, 사회 공동체의 변화이다. 복음은 성도 개인의 삶과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반드시 사회 구조로 흘러가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직의 실천 그리고 거룩함이 형성되며 우상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가 그 땅에 형성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를 생각해 보면 당시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책을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책값만 해도 은 오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45</sup>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사회

---

<sup>45</sup> 행 19:19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있었다. 그 중에 참된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의 사람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등이 그러했다. 더 나아가 이들 개혁의 특징은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이스라엘의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개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그러하다. 이 부흥운동에는 기도와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 이 평양 대부흥회가 더 특별한 것은 평양 땅의 부흥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새기는 사경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때 선포되었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누구나 즐기던 문화와 같은 술과 담배, 노름과 토속 종교 등에서 돌이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의 역사는 평양 땅을 넘어 각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여파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전도의 열정의 회복이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은 각처로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도의 열정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곳이 어떤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골 골짜기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 제 IV 장

### 통(通)설교의 실천

#### 1) 통(通)설교의 실행방법

현재 하늘빛교회의 예배는 모두 4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주일 오전 7시 30분, 9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 장년 성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다.

<표7> 하늘빛교회 청년 공동체 예배 순서

경배와 찬양		레위기과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청년
성경봉독		설교자
설교		설교자
봉헌 및 결단찬송		다같이
축도		설교자
청년별 소그룹 모임		다같이

경배와 찬양 시간은 30분 정도로 마치지게 되며, 설교 앞 전까지의 순서는 10분 내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봉독부터 시작해서 설교까지는 30분내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봉헌과 축도가 마쳐진 후에 청년들은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새기며, 청년들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들로 진행이 된다.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은 통(通) 트랙을 따라 참조하여 구성하여 보았다. 전체적인 통(通)트랙은 다음과 같다.

<표8> 통(通)성경 통트랙<sup>46</sup>

7개의 통(通)트랙	13마당	52개의 제목
통(通)트랙1 - 모세 5경	1마당 하나님의 마음	1. 원역사(창세기 1-11장)
		2. 족장사(창세기 12-36장)
		3. 입애굽과 민족(창세기 37-50장)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4. 출애굽과 제국(출애굽기 1-18장)
		5. 세계 선교의 꿈 - 제사장 나라(출애굽기 19-40장)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레위기)
	3마당 만나세대	7. 만나세대(민수기)
		8. 만나세대 졸업(신명기)
	4마당 신앙계승	9. 약속의 땅 입성(여호수아)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사사기)

<sup>46</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 통독원, 2022), 6-9.

		11. 교육의 성공사례(룻기)
통(通)트랙2 - 왕정 500년	5마당 천년모범	12. 미스바세대(사무엘상 1-7장)
		13. 왕정의 시작(사무엘상 8-31장)
		14. 세 번의 기름부음 - 제사장 나라 충성도(사무엘하 1-10장)
		15. 하나님의 종 다윗 (사무엘하 11-24장, 열왕기상 1-2장)
	6마당 마음과 지혜	16.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시편
		17. 하늘 보석 읍(읍기)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8. 남북 분열 왕조(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아모스, 호세아)
		19. 요나의 기적(요나)
		20. 북이스라엘과 멸망 (열왕기하 15-20장, 이사야 1-39장)
		21.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이사야 40-66장, 미가)
8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	22. 남유다 멸망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23. 70년의 징계	

		(열왕기하 24-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오바다)
		24. 역대기-재건 세대 선물(역대상, 하)
통(通)트랙3 - 페르시아 7권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25.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에스겔)
		26. 제국 변동의 밑그림(다니엘)
	10마당 재건 공동체	27. 성전 재건 - 귀환과 투자 (에스라 1-6장, 학개, 스가랴)
		28. 에스더의 파티(에스더)
		29. 에스라의 권한(에스라 7-10장)
		30. 성벽 재건(느헤미야)
		31. 고백과 침묵(말라기)
통(通)트랙4 - 중간사 400년	11마당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32. 헬라제국과 중간사 - 모세오경의 세계화
		33. 헬라 제국과 중간사 - 마카비 혁명
		34.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 왕 겸 대제사장 통치
		35. 로마 제국과 중간사 - 헤롯 왕조
통(通)트랙5 - 4복음서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36.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3마당	37.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한 영혼 사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38.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39.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40. 마지막 일주일 -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41.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통(通)트랙6 - 사도행전 30년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42. 열리는 제자 시대 - 2,3,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사도행전 1-12장)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43. 바울의 1차 전도여행 - 예루살렘 공회(사도행전 13장-15:35)
		44. 바울의 2차 전도여행(사도행전 15:36-18:22,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45. 바울의 3차 전도여행(사도행전

		18:23-19장, 고린도전, 후서)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46.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사도행전 20-23장, 로마서)
		47. 죄수 바울 로마 도착 (사도행전 24-28장)
		48. 교회론과 기독교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9.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 로마 대화재 사건(디모테전서, 디도서, 디모테후서)
통(通)트랙7 - 공동서신 9권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50.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유다서)
	20마당 미리 건네 받은 승리의 노래	51.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요한일, 이, 삼서)
		52.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요한계시록)

위의 통(通)트랙을 참고하여 필자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총 26번의 통(通)설교를 진행하였다. 진행되었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

&lt;표9&gt; 하늘빛교회 설교본문

번호	날짜	본문	설교제목
1	2023년 9월 3일	창세기 1장 24 - 31절	하나님의 마음(1) - 보시기에 좋았더라
2	2023년 9월 10일	창세기 12장 1 - 3절	하나님의 마음(2) - 너는 복이 될지라
3	2023년 9월 17일	출애굽기 2장 23 - 3장 8절	하나님의 마음(3) -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4	2023년 9월 24일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의 마음(4)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5	2023년 10월 1일	민수기 13장 25 - 33절	하나님의 마음(5) -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입니다.
6	2023년 10월 8일	여호수아 1장 1 - 9절	하나님의 마음(6) -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7	2023년 10월 15일	사사기 10장 10 - 16절	하나님의 마음(7) - 하나님의 본심
8	2023년 10월 22일	사무엘상 15장 10 - 31절	하나님의 마음(8) -

			사울과 다윗(I)
9	2023년 10월 29일	사무엘상 17장 45 - 54절	하나님의 마음(9) - 사울과 다윗(II)
10	2023년 11월 5일	열왕기상 11장 23 - 40절	하나님의 마음(10) -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11	2023년 11월 12일	요나 4장 1 - 11절	하나님의 마음(11) - 하나님과의 동상이몽
12	2023년 11월 19일	예레미야 25장 1 - 14절	하나님의 마음(12) - 칠십 년이 끝나면
13	2023년 11월 26일	다니엘 1장 1 - 21절	하나님의 마음(13) -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14	2023년 12월 3일	에스라 1장 1 - 11절	하나님의 마음(14) -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15	2023년 12월 10일	느헤미야 1 - 11절	하나님의 마음(15) -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16	2023년 12월 17일	마태복음 4장 1 - 11절	하나님의 마음(16) - 예수님의 시험
17	2023년 12월 24일	누가복음 15장 11 - 24절	하나님의 마음(17) -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1)
18	2023년 12월 31일	누가복음 19장 1 - 10절	하나님의 마음(18) -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2)
19	2024년 1월 7일	마태복음 27장 45 - 56절	하나님의 마음(19)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20	2024년 1월 14일	사도행전 2장 1 - 13절	하나님의 마음(20) -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오셨다
21	2024년 1월 21일	사도행전 9장 1 - 19절	하나님의 마음(21) - 이방인의 택한 그릇 사도바울
22	2024년 1월 28일	사도행전 18장 1 - 10절	하나님의 마음(22) -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23	2024년 2월 4일	사도행전 28장 23 - 31절	하나님의 마음(23) -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24	2024년 2월 11일	로마서 8장 31 - 39절	하나님의 마음(24) -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5	2024년 2월 18일	베드로전서 1장 1 - 12절	하나님의 마음(25)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26	2024년 2월 25일	요한계시록 1장 1 - 8절	하나님의 마음(26) -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 2) 하늘빛교회 청년부 통(通)설교 원고

필자가 설교했던 원고문 중 두 편의 설교를 첨부하였다.

① 먼저 2023년 11월 12일 나누었던 요나서 4장 1 - 11절의 ‘하나님의 마음(11) -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의 통설교의 원고문은 아래와 같다.

성경에는 참 신실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보면,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던 이사야 선지자 또 바벨론에 의해 이제 곧 자신의 고국이 몰락해 감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음란했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 드리며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품는 마음으로 품었던 호세아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늘 이런 신실한 선지자들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상이몽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의 뜻은 같은 침대에서 두 사람이 잠이 들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입니다. 즉 겉모습은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마음과 관심이 전혀 다른 반대 편을 향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과 동상이몽 했던 두 번의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나서 1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되었음이니라 하시

나라.

이 요나는 아모스와 호세아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던 니느웨는 요나가 있던 곳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앗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말씀에도 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 표현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대도시가 많지만, 당시 니느웨는 어린아이의 수만 12만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 숫자까지 계산하며 니느웨는 당대 최대규모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이렇게 큰 성읍이기도 했지만 니느웨는 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악독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상달 되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어디로 가는가?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첫 번째 동상이몽입니다.

자!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판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을 죄와 허물에서 돌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그의 부르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단 한 사람에게만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단 한 나라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징계의 매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흐르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니느웨가 앗수르 민족의 수도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앗수르 민족은 참 잔인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문헌을 보면 앗수르는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자르고, 가죽을 벗겨서 강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대량 학살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앗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나훔서를 보면 앗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 왔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약탈자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랐다고 합니다. 즉 앗수르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정하실 때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선교지든지 갈 마음이 있지만 절대 일본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의 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면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요나는 자신의 친척이나 가족들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돌이켜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가 가장 땅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다시스의 부유함 때문입니다. 다시스는 금과 은, 보물을 만드는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진귀한 보석을 수입하기 위해 다시스에 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팔리는

곳은 절대 빈민가가 아니죠. 보석을 살 수 있는 부유함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스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에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즉 선지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편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큰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타던 배는 파선 되었고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 안에서 사흘 동안 있던 요나는 이 과정을 통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수고를 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당대에 이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 밖에는 없는가? 아닙니다. 동시대 함께 사역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묵묵했던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고멜이 다른 이에게로 떠나갔을 때에도, 그 고멜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실한 호세아를 니느웨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풍랑을 보내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결국 돌이키게 하시는 수고를 하시고 계실까요?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동일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요나처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요나가 만난 풍랑과 큰 물고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참 가혹합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

랍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으십니다.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외칩니다. 그러나 외치기는 외쳤지만, 요나의 모습 속에는 조금의 진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워낙 큰 성이기에 걸어 삼일 길이 걸렸지만 요나는 고작 하루만 돌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충 전했다고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요나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 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굶은 배 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성내며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분노가 극심해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의 최후를 보기 위해 언덕 위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 큰 박녕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가려주는 박녕쿨로 인하여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바로 이튿날 하나님은 예비하신 벌레로 이 박녕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10절 - 11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스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 너가 이 박넝쿨에 관심을 가지듯, 니스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명이다, 너는 어찌 그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소중하게 여기는 박넝쿨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니스웨 백성들 즉 요나와 하나님과의 두 번째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나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며 슬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이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본문 4장은 전체가 11절의 말씀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에는 나라는 표현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에도 왜 지었는가? 5절 말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했던 것도 내가 앗수르 민족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니

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을 아십니까? 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그런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니느웨 안에도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요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용서와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악된 사람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영혼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박영쿨을 아끼듯 왜 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느냐?” 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오픈 결말이라는 것이 있죠.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관객들이 스스로 대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요나를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다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디모데후서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

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와 참 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니느웨가 있는데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박녕쿨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직장, 내 학위, 내 연봉, 내 미래, 내 결혼, 우리도 하나님과 동상이몽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바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각과 마음도 그 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직업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꿈과 같은 마음, 같은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상일몽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 라는 자기 테두리를 넘어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언을 드립니다.

② 2023년 12월 31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9장 1 - 10절의 ‘하나님의 마음(18) -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2)’의 통설교의 원고문은 아래와 같다.

감동과 은혜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감동은 우리 눈에 눈물이 나게도 하고, 마음을 뜨겁게도 하지만 삶의 변화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반드시 마음의 회개와 변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삭개오 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언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 여정에서 볼 때 이 여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 땅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고용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더 높은 세금을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허가 받은 도둑, 창기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 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지형에서 요단강 동편에 길목입니다. 그렇기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막대한 세금이 모여졌고,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부자였다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일종의

저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생활로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음을 고발하는 단어입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 이 두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을 보면 그가 보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즉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집요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작았던 그는 예수가 여리고에 오시자 그 길목에서 예수를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호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로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세리장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역시 이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삭개오 안에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사람들도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텅 비어있는 바로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자기 같은 세리들, 죄인들까지도 가까이 하시는 구원자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나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와 체면을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삭개오의 마음, 이런 사람의 영적인 공허함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삭개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는 흙에서 뿌리가 뽑혀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 재물이든지 명예이든 권세이든 사람이든 자신의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허함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태국에서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가 있을 때 예로부터 그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얀 코끼리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면 신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애지중지하며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엄청난 돈과 시간을 써서 하얀 코끼리만 키우다가 그 신하의 인생이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자신의 한 평생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나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대목은 지금 예수께서 품고 계시는 삭개오를 향한 깊은 관심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삭개오의 반응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가?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을까요? 저는 삭개오 라는 이름의 뜻에 그 단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원래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는 자신의 바램을 담습니다. 즉 삭개오의 이름의 담긴 부모의 바램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동족의 눈에 피 눈물이 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기쁨 되는 세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리고의 세리장, 아니면 여리고의 부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 삭개오라 불러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는 원래 깨끗한 사람이다. 너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심으로 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정체성과 그의 가치를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치와 정체성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우리 스스로도 내 존재와 가치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벽을 뚫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와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엇이래 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볼 때, 택하심을 받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힘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떤 허물, 어떤 죄악, 어떤 실패 가운데 있던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마음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음이 다시금 전달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의 변화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불현듯, 삭개오가 8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는 직업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한 비용을 4배나 갚아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파산선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와 결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책망하고, 정죄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을 들어가셔서 그의 집의 있는 값진 물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부당한 재물로 모은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의롭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삭개오를 향해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소리를 치시거나 아니면 “율법을 하나 하나 나열하시면서 삭개오의 죄목들을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삭개오를 정죄하고 책망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관심의 모습으로 삭개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삭개오는 이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게 오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 예수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나 같은 죄인 중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떠한 재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불의하게 쌓아온 재물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분은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은 설사 그 자리가 더러운 마구간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곳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그 자리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들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곳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심에도 그 곳으로 오십니다. 그 분은 설사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은 그 한결 같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주님의 흔적과 손길이 우리 모든 발걸음 마다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분 앞에 나아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삭개오의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언을 드립니다.

두 편의 설교 이후에 나눠주었던 소그룹 나눔지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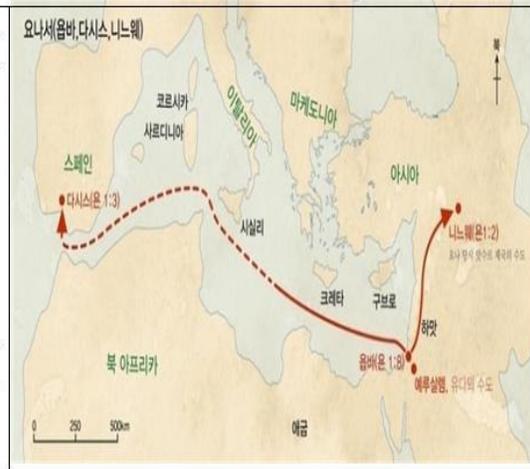
2023년 11월 12일, 하늘빛교회 청년공동체 예배  
 “하나님과 동상이몽(同床異夢)” (요나 4장 1 - 11절 말씀)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다시 니느웨로 온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녕쿨을 주십니다. 요나는 그 박녕쿨로 기뻐하지만 박녕쿨이 사라지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녕쿨을 아끼는 요나의 마음처럼 니느웨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요나로 깨닫게 하십니다.



### 질문해 보기

1.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위의 글에도 나와 있지만,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 요나 역시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풍랑과 큰 물고기와 삶의 고난들을 통해 요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기 위한 내 삶의 풍랑과 큰 물고기가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2.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은 니느웨를 향해 있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박녕쿨에 있었습니다. 요즘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잠시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나의 관심과 마음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중보해 주세요.
3. 현재 청년부 내에서 작성한 전도대상자 명단은 모두 21명입니다. ‘김동은, 장우영, 김재학, 최희선, 김민직, 김상환, 김지민, 김민기, 서정민, 김희종, 유재순, 김지원, 이명석, 박현규, 최진규, 이진원, 석환, 송미경, 김새나, 김진솔, 신정환’ 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더불어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주변에서, 내가 가야 하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한 주 동안 그 지체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새로운 전도대상자가 있다면 소그룹 리더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 정리하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 나눔을 마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진정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2023년 12월 31일 하늘빛교회 청년공동체 예배  
 “삭개오의 변화” (누가복음 19장 1 - 10절)

### 마음 열기

※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를 회상하며 삶을 나누어 봅시다.

삭개오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리고를 지나가실 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나 시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회복을,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회복되게 됩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이 변화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 질문해 보기

1. 삭개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리고를 지나가실 때, 뽕나무(돌무화과 나무)위에 있던 삭개오와 예수님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도, 그의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있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인정, 이루어 놓은 업적, 때로는 철썩 같이 믿던 것이 무너졌을 때의 허무함, 그런 공허함들이 있었다면, 함께 같이 나누어 봅시다.
2.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러한 예수님과와의 첫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과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함께 같이 나누어 봅시다.
3.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것과 속여 뺏은 것을 4배나 갚아 돌려주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성품, 가치관, 삶의 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간절하게 변화를 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고, 서로의 변화를 위해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 정리하기

삭개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 기도하기

1. 삭개오처럼 날마다 삶에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 청년들의 취업, 결혼, 진로로 고민하는 삶에 세밀하게 간섭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 3) 통(通)설교에 대한 설문조사

통(通)설교는 2023년 9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후에 하늘빛교회 2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通)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의 범위는 하늘빛교회 청년으로서 20대에서 30대까지 10명의 청년과 30대에서 40대까지 10명의 청년이며, 질문은 모두 6가지의 항목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6개월 간의 통설교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청년들의 신앙생활의 기간이 다 다를 수 있고,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도 다 다를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질문했던 문항들은 총 6개의 문항이며,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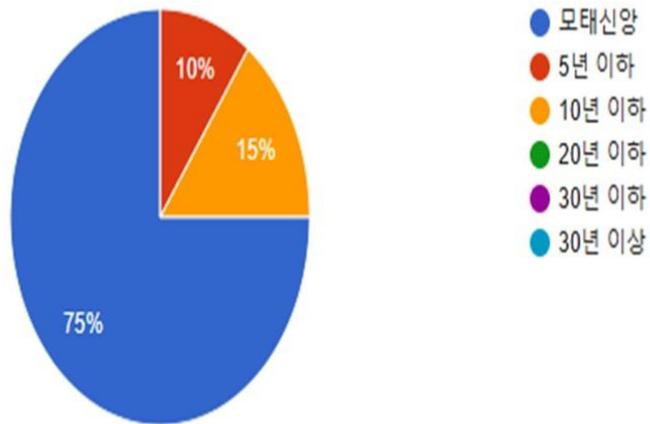
- 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 ②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③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④ 기존의 설교와 통설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쉽고 이해가 잘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 ⑤ 통(通)설교가 당신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⑥ 통(通)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면이 그러합니까?

더 나아가 20명의 청년들 인터뷰 대상들 중에서 2명의 청년들을 선별하여 자신들이 경험했던 변화를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보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9> 설문조사1 -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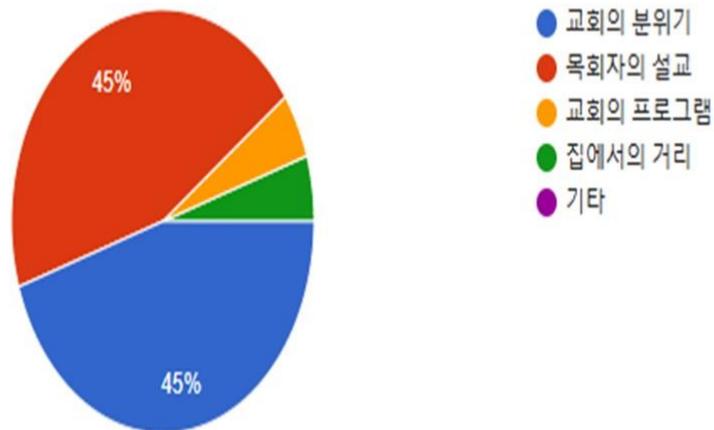


20명의 청년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청년들의 지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조사해 보았다. 설문에 응한 대상들의 신앙생활의 기간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75%였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이하라고 응답한 청년이 15%였다. 나머지 10%는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즉 설문에 응답한 다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온 대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설문조사2 -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 20개



두번째 질문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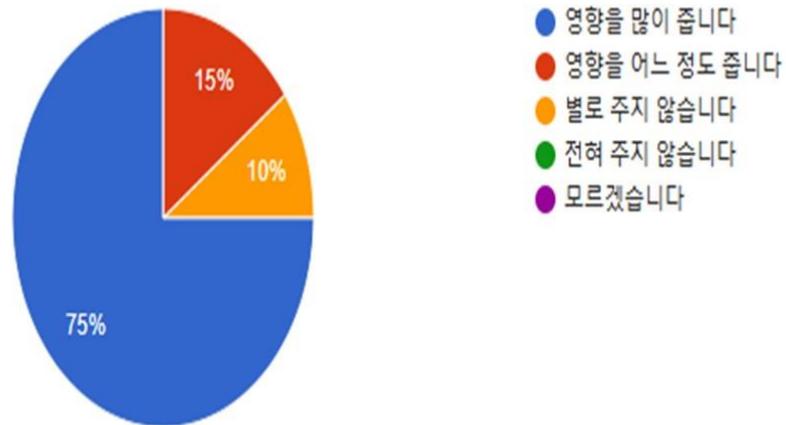
위 조사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목회자의 설교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45%였고, 교회의 분위기 라고 응답한 청년들도 45% 였다.

만약 이 설문조사가 기존의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면 아마도 목회자의 설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거리 등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위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히 젊은 세대일 경우에는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도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설문조사3 - 본인의 신앙성장에 있어서 목회자의 설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신앙성장에 있어서 목회자의 설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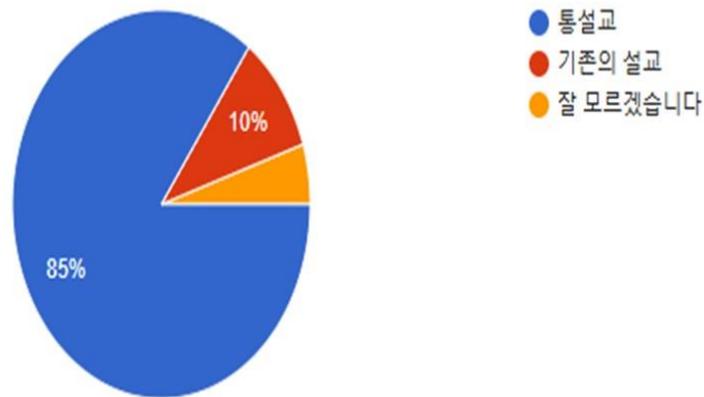
조금 더 자세하게 청년들에게 목회자의 설교와 신앙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질문 하였다. 영향을 많이 준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75%였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15%였다. 이 말은 다수의 청년들의 신앙성장에 있어 설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위의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성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림12> 설문조사4 - 지난 6개월간 통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기존의 설교와 통설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쉽고 이해가 잘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지난 6개월간 통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기존의 설교와 통설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쉽고 이해가 잘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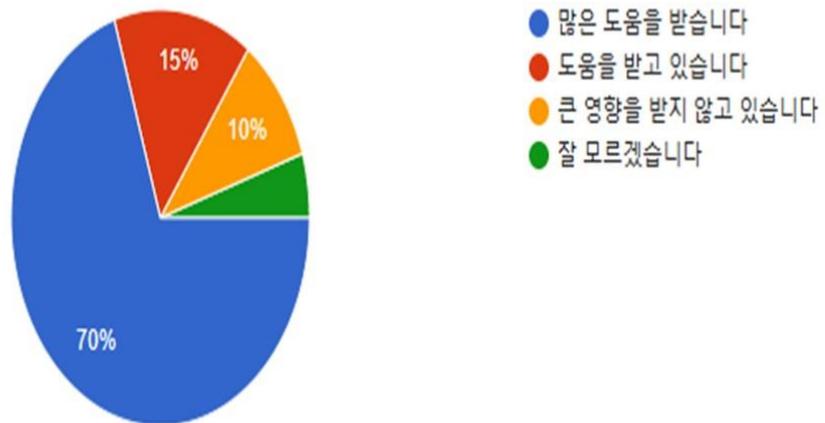


기존의 설교와 통(通)설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통(通)설교 라고 답변을 준 청년들이 8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설교라고 답변을 준 사람이 10%였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통(通)설교가 더 이해가 잘 간다는 답변은 그만큼 통(通)설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13> 설문조사5 - 통(通)설교가 당신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설교가 당신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0개



통(通)설교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많이 영향을 준다고 대답을 청년이 70%였고, 어느 정도 준다고 생각한 청년도 15%나 되었다. 종합해 보면 85%의 청년들이 통(通)설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청년 목회에 통(通)설교를 적용했을 때 청년들에게 큰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림 14> 설문조사6 - 통(通)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면이 그러합니까?

통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면이 그러합니까?

응답 20개



통(通)설교를 듣고, 삶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청년들의 75%가 이전보다 성경통독과 말씀묵상(QT)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더불어 15%는 이전보다 봉사생활에 더 힘을 쓰고 있다고 답을 했으며, 5%는 이전보다 전도에 더 큰 힘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의 5%는 기도생활에 더 큰 힘을 쓰고 있다고 답을 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았을 때 청년들의 삶이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와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이 통(通)설교를 통해 이전보다 더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 4) 통(通)설교에 대한 심층인터뷰

통(通)설교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20명 중의 두 명을 선출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번째 인터뷰 참여자는 모태신앙으로, 32살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성 청년이었다. 인터뷰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다.

A. 신앙생활을 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a. 저는 모태신앙으로 현재 32년 짜 하늘빛교회에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B. 기존 설교와 통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b. 기존 설교와 통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차이점은 설교를 들 때 통설교를 들은 후에 설교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높아졌다고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설교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전해주시는 말씀과 나의 삶과 참 많이 멀게 느끼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통설교 라는 것을 하시면서 다른 것보다 목사님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끝부분에 결단을 요청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번 한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리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C. 통설교를 들은 이후에 달라진 변화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으로 성경통독을 하게 되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도 성경을 아직 일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러브레터 라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바쁘고 분주할 때는 하루 한 장의 성경도 읽기 어려웠는데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이후부터는 짧은 말씀은 최대한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경을 다 일독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상반기가 가기 전에는 꼭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인터뷰 참여자는 하늘빛교회에 다닌 지 5년 된 28살의 여성 청년이었다. 인터뷰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다.

A. 신앙생활을 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a. 교회는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부터 다녔고 하늘빛교회에 온 지는 거의 5년 정도 되었습니다.

B. 기존 설교와 통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b. 기존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많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해 주시는 통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의 배경과 지리,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더 쉽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조금씩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많이 강조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C. 통설교를 들은 이후에 달라진 변화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도에 힘쓰게 되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c. 설교 때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속에 계속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은 제게는 참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시도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있는 친구들은 전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고 있지 않으셔서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시작한 것이 있는데, 청년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스리랑카 선교사님께도 적은 비용이지만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평가

통(通)설교의 전체적인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통(通)설교를 통해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통(通)설교를 접하게 되면서 들리지 않던 설교 말씀이 조금씩 들리게 되었다.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변화까지도 있게 되었다. 성경을 보는 시각도 더 깊어질 수 있었다. 이전처럼 성경을 볼 때에 조각조각으로 보지 않고 성경 전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읽어내려고 하는 시각들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기라는 틀을 깨고 타인을 위해 봉사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는 크고 작은 변화도 볼 수 있었다.

복음의 본질과 가치는 그 어떤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 속에서도 달라질 수도 없고, 또 달라져서도 안 된다. 진리는 변함이 없고 늘 한결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점점 복음과 멀어지는 청년 세대를 보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담고 있는 외적인 형식과 방법은 언제든지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수준과 눈높이로 내려가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위의 통(通)설교의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통(通)설교를 통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깝게 전달될 수 있었고, 청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게 되었다.

## V. 결론

### 요약 및 평가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선두 주자들이며 한국 교회의 미래이다. 내일이 없는 미래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청년들의 현실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수많은 암울한 데이터들과 비관적인 시각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좋아진 예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은 수는 점점 더 적어지는가? 분명한 것은 잠깐 반짝이는 단기적인 프로그램과 나아진 환경만으로는 절대로 다음 세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점점 기독교와 멀어지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하였다.

위의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이해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의 청년들은 매우 복잡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종교와 다문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조차도 하나의 소음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에 진행되었던 한 기독교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 설문조사는 비신자들이 아닌 기독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은 앞으로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에 1명은 10년 후에 교회에 안 다닐 것 같다는 충격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에 대해 답변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50%의 청년들이 설교가 은혜스러운 교회로 답변을 했으며, 또한 35%의 청년들은 목회자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sup>47</sup>

중요한 것은 이 답변의 공통점은 모두 목회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음과 뜻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목회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기독교 진리를 떠났던 청년들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금 목회자가 전하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청년 세대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 순수한 복음적 설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설교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때 교회 안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설교자는 종종 사역의 분주함과 조급함 때문에 설교의 중요성을 놓치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그 사역의 중심에 설교가

<sup>47</sup> 김진영,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10년 후엔 안 다닐 듯” *기독일보*, 2021년 2월 20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707> [2024.3.1. 최종 접속]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 낼 수 없다. 외적인 방법들로는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질 뿐 결국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점의 문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필자가 그런 고민 속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통(通)설교였다. 거듭 언급하지만 기존의 익숙한 틀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다.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익숙함을 추구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통(通)설교를 통해 청년들에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보여졌다. 청년들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말씀에 반응하며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의 영적인 체질들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변화들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수치화 할 수도 없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통(通)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해 갈 때, 목회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 사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다. 그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지한 고민과 몸부림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또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국내서적

- 신동렬. 『청년에 답하다』 서울 : 예수전도단, 2016.
-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서울 : whale books, 2023.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 통독원, 2007..
-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 통독원, 2009.
- 조병호. 『21세기는 통이다』 서울 : 땅에쓰신글씨, 2007.
- 조병호.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 보인다』 서울 : 통독원, 2012.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3.
-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1권』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2권』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3권』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4권』 서울: 통독원, 2014.
-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 규장, 2023.

### 번역서적

- 아담 헤밀턴. 『말씀을 해방시켜라』 유성준 역. 서울 : KMC, 2009.
- 존 스토트. 『설교론』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 복 있는 사람, 2010.

### 학술논문

- 서울 연구원 도시정보센터. (2019). MZ세대 특성에 적합한 리더십 향상 방안, 『월간 서울 동향 리포트』 2019

## 신문기사

고현중. “다음 세대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 희망 없다” *당당뉴스*. 2016년 12월 8일,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68> [2024년 2월 27일 최종 접속]

김변호. “MZ세대 복음화율 3%… 부모가 신앙교육 전면 나서야” *국민일보*. 2022년 4월 12일,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40013> [2024년 2월 27일 최종 접속]

노진실. “[창간 76주년 기획] 획일화 거부하는 MZ세대(하)- M세대와 Z세대는 '가깝고도 먼 우리' ” *영남일보*. 2021년 10월 19일,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1018010002221> [2024년 2월 27일 최종 접속]

정채영.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 *뉴스넷*. 2023년 3월 13일, <https://www.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5> [2024년 2월 27일 최종 접속]

정채영. “대한민국 자살률 여전히 'OECD 1위'…설상가상 '청소년 자살 급증'” *데일리안*. 2022년 6월 15일,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3007> [2024년 2월 27일 최종 접속]

조영태. “2036년 한국, 소득 60% 세금 때 75세 이상 700만 명 부양한다” *조선일보*. 2016년 6월 7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021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0214.html) [2024년 3월 1일 최종 접속]

김진영. 2021.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10년 후엔 안 다닐 듯” *기독일보*. 2021년 2월 20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707> [2024년 3월 1일 최종 접속]

## 통계 및 이미지 출처

“서울시 행정구역 내 강서구 위치” 강서구청홈페이지. <https://www.gangseo.seoul.kr/gs050102> [2024년 3월 1일 최종 접속]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 [2024년 3월 1일 최종 접속]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 인원”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 [2024년 3월 1일 최종 접속]

“서울시 지역별 평균연령(행정구역별)”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 [2024년 3월 1일 최종 접속]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Douchan Na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November,25 , 1981

Parent`s Names: Sangnam Na and Yeonmoon Kim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Semyeongcomputer High School</b> 33, Tongil-ro 92, Eunpye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4, 1999
egiate: <b>Harbin Normal University</b> No. 50, Hexing Road, Southern District, Harbin City, Heilongjiang Province, China	B. S.	July 9, 2008
Graduate: <b>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b> 56, Independent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M. Div	Feb 2,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나두찬

Signature

Douchan Na

Name typed

March 11. 2024